

사회갈등 현안 ‘화쟁사상’으로 푼다

출·재가 사회 저명인사 14명 위촉

화쟁위원회 발족...위원장 도법스님

사회적 갈등 현안과 종단 내의 주요 사안에 대해 불교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해소하는 기능을 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지난 8일 발족했다. ▶관련기사 2~3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화쟁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화쟁위원회는 이들 위원들이 위촉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스님과 재가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스님 9명, 재가자 5명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범등스님(조계종 호계원장), 성타스님(불국사 주지), 도법스님(인도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보광스님(동국대 교수),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원택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진관스님(한국인권행동 공동대표), 범안스님(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자민스님(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김종빈(전 검찰총장), 박윤환(전 환경부장관), 윤시영(전 대구경찰청장), 성태웅(건국대 교수).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위촉식에서 “오늘 우리 종단은 매우 뜻 깊은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우리 사회 여러

갈등을 슬기롭게 풀기 위해 조화와 상생의 자세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불교적 대안을 앞서 마련하고 실천해오신 분들을 모셨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갈등은 대립과 분노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부처님과 조사님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소통과 대화로 해소할 수 있다”며 “다양한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치료가 아닌, 이해당사자가 흔쾌히 박수 칠 수 있도록 치유하는 화쟁위가 되도록 종단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들은 1차 회의를 열고 도법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총무원은 “위원은 2년 임기 동안 다양한 사회분야 현안과 종단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종단은 별도 종령을 제정해 활동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화쟁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대립과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 환경, 노동, 통일 분야의 중진 스님과 NGO 대표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소통 화합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3면에 계속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위촉장을 받은 화쟁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사회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불교자원봉사 전국네트워크’ 구축한다

본지·조계종사회복지재단 공동 연말까지

사찰·단체 20여 곳 대상 ‘무료교육’ 실시

불교신문(사장 선목스님)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스님)은 오는 12월말까지 불교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불교자원봉사 전국네트워크사업’을 전개한다.

불교신문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캠페인 후속사업으로 전개되는 불교자원봉사 전국네트워크사업은 ‘전국사찰 순회 자원봉사교육’과 ‘교구본사별 자원봉사센터 설치’ 등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전국사찰순회 자원봉사교육은 불교자원봉사 기본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실시한 뒤 조계종 자원봉

사단 지부(지회)로 등록함으로써 불교자원봉사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교육은 ‘불교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이념’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사찰자원봉사활동의 실제’ ‘활동처의 이해’ ‘MBTI 성격유형검사’ 과목 중 단체가 선택한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해서 총 3과목을 5시간 동안 교육하게 된다. ▶관련기사 5면

교육을 희망한 전국 20여 곳의 사찰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열리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이수 사찰이나 단체에는 ‘자원봉사실천도량’ 명패가 전달되고 조계종 자원봉사단 지부(회)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

며, 개인에게는 교육이수증과 조계종 자원봉사단원증이 수여된다.

자원봉사교육을 기반으로 각 사찰의 자원봉사팀을 육성하고 사찰 및 단체간의 자원봉사활동 정보교류와 활동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구본사별 불교자원봉사센터 설치’ 사업도 전개된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를 시작으로 연내에 총 3~4곳의 교구본사에 불교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 뒤 중장기적으로 모든 교구본사에 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은 “전국 각 사찰과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불교자원봉사활동을 하나로 묶어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전개하게 됐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에 보다 많은 사찰과 불자들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소신공양’ 문수스님 추모문화제 5면 연등축제 노래 인터넷으로 듣는다 9면

문수스님 추모사업 중단차원 전개

추모사업회 발족 ... 4대강 문제 종단입장 ‘주목’

지난 5월31일 ‘4대강 사업 중지’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촉구하며 소신공양한 문수스님의 추모사업이 종단 차원에서 전개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본·말사별로 동시에 추모법회를 개최하고, 직할교구 사찰들은 문수스님 49재 기간에 서울 조계사에서 ‘릴레이 추모기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직할교구는 10일 오후3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다.

총무원은 문수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추모사업회 구성도 추진한다. 추모사업회에는 제10교구본사 은해사와 제9교구본사 동화사를 비롯해 도반대표, 해인사 행자도반대표, 중앙승가대 도반대표 및 관련단체 대표 등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총무원은 종단이 주최하고 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속 심포지엄도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 심포지엄은 ‘소신공양의 사회적 의미-불교의 사회참여와 스님들의 소신공양’을 논의한다.

이어서 △4대강 사업 이대로 좋은가 △역대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어떻게 진행되었나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빈부격차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을 다루게 된다. 불교의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수스님이 1000일간 외부출입을 끊고 마지막까지 수행한 뜻을 기려, 마지막 수행처인 군위 지보사에 무문관(無門關)을 개설하고, 부도탑을 세울 예정이다.

기획실장 원담스님과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추모사업을 통해 문수스님이 남긴 유지를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무원 기획실은 지난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스님의 소신공양 의미를 되짚어보고, 4대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점검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종단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이웃종교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10·27 역사교육관 ‘조계사’ 추진

법난명예회복 심의위, 12차 회의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제12차 전체회의가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10·27법난 역사교육관을 서울 조계사에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위원장 영담스님은 “지난해 역사교육관 부지 선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후 여러 가지 안을 살펴본 결과 조계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의위원 삼보스님이 “10·27법난 피해자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영담스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 건 등 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통과시켰다. 또한 10·27법난 당시 군경의 검거를 피해 도피한 경우 정신적 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영담스님을 비롯해 삼보스님, 혜경스님, 우무석(국가보훈처 차장), 윤원호, 조남진, 허남오, 이명목 위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법장 대중사 나눔기념관 건립을 위한 추모음악회

2010 생명사랑 자비콘서트

7. 2 (금요일) 오후 7:30 / 7. 3 (토요일) 오후 7:00

장소 | 서울 여의도 KBS홀

출연



서희 호민스님 도선스님 백아현 장윤정 박현빈 신문필투스 임인오 한영애 마을소리 송기향연 소프라노 박소미 서울경제대학교합창단

후원계좌

우체국 312942-01-001088 서광사

문의

(041)664-2001, 070-7766-3900

후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수덕사·전국비구니회·생명나눔실천본부·문화체육관광부

주최/주관 | 추모음악회추진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서광사